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4차 세션

모호한 암시와 격렬한 논쟁으로 가득 차 있고, 모호한 상황을 다루는 유다서가 신약성경 뒷부분에 적절하게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존경받지만 편의상 잊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다서는 일반적인 주일 성서일과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유다서를 연구하는 주제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건 시간에는 적합하지 않죠. 만약 성경 출판사들이 유다서 인쇄를 중단한다면, 어떤 출판사들은 눈치채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유다서는 현대 독자들에게 몇 가지 난제를 안겨줍니다. 첫째는 간결함입니다. 우리는 겨우 25절이라는 매우 짧은 분량의 서신을 통해 수신자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저자가 다루고 있는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이 저자를 바울이나 야고보, 또는 요한일서, 이서, 삼서를 우리에게 준 장로만큼 잘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친구라기보다는 정경적으로 아는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서신이 심판과 정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글이 본질적으로 특정 회중에 들어와 교인들을 이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향한 비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교인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조장하고 기독교 관행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주의라는 21세기의 가치와 상충됩니다. 셋째, 저자가 구약의 사건들과 성경 외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을 종종 모호하게 언급하는 점입니다.

이 짧은 서신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독자는 초기 유대 문헌의 광범위한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사에서 유다서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유다서의 권위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성경 외적인 본문에 대한 호소력 때문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습니다. 루터는 이 책이 신약성경에 포함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도 정경에 포함될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짧은 강의를 통해 저는 유다가 제자 훈련과 사역이라는 지속적인 사역에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첫째, 유다는 신약 전체에 걸쳐 강조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는 확신을 강화합니다. 즉, 우리를 옛 자아의 정욕과 욕망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는 새 자아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른 어떤 응답이나 다른

용도는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뿐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구원하시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존 웨슬리의 강조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둘째,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 즉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는 특히 이것을 목회자의 성실성과 연결시켜, 항상 중요한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명백한 정욕이든, 더 교묘한 자아와 일용할 양식의 유혹이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교파와 일부 초교파 교회를 뒤흔들고 복음에 광범위한 수치를 안겨준 스캔들은 이러한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셋째, 유다는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는 특히 타인의 억압적인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점점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21세기 서구 교회의 정서에 어긋납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반문화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주님 안의 형제자매들을 회복하기 위해 개입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러한 개입의 대상이 될 때 겸손하게 귀 기울여 듣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여만으로도 유다서의 내용은 여전히 주의 깊고 세심하게 경청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서신의 첫 단어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바로 유다,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유다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으며, 12 족장 중 한 명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실제로 그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한 정치 단체인 남유다 왕국에 자신의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날 수 있습니다 .

갈릴리 사람 유다는 혁명가였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의 아들 유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는 이스가리옷이 아닙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다메섹 유다, 바르사바 유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예수의 이복형제이자 야고보, 요셉, 시몬의 형제,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명 이상의 자매의 형제인 유다가 등장합니다. 저자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 중 마지막 유다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형제가 주변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진 인물일 때만 자신을 아버지가 아닌 형제와 연결 짓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이복형제 야고보는 부활 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그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확고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곧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했는데, 특히 갈라디아서 2장 1-10절에 언급된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당시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서도 바울과 그의 사명에 대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지시를 내립니다.

특히 19세기에 역사 비평의 부상은 학자들로 하여금 모든 신약성서의 저자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 짧은 서신이 유다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유다의 이름으로 후대 저자가 쓴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석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의 진위성에 대한 반론과, 이 서신을 예수의 이복형제 유다가 쓴 것으로 보는 저의 개인적인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짧은 서신의 진위성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은 이 서신이 1세기 후반이나 2세기 초반에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준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세 가지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주장은 제 생각에 가장 설득력이 부족하며, 사실 오래전에 폐기되었어야 할 주장입니다. 유다는 사도 이후의 저술에서 나타난다고 주장되는 특징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에 대한 생생한 기대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시간적 근접성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도 없고, 특히 이러한 기대의 성취가 지연될 것이라는 암시도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후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될 것이라는 인식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지역 회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위계 질서에 호소하는 것으로, 서기 110년경에 서신을 쓴 안티오크의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서에는 그러한 호소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믿음'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역동적인 관계적 용어에서 교리 체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변질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특히 문제가 되는 기준입니다.

첫째, 믿음은 교회 역사 초기에 일련의 신념과 삶의 방식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갈라디아서 1장 23절과 24절에 이미 등장하는데, 바울은 서기 40년경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회상합니다. 당시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옛적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한때 파괴하려 했던 믿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분명히 관계적 용어가 아니라, 바울이 이전에 반대했던 운동을 정의하는 신념 체계와 실천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특정 기준은 또한 바울이 그리스도인과 예수 사이의 관계적 신뢰라는 용어로 믿음을 사용하는 더 전형적인 방식을, 즉 "초기에는 더 생동감 넘쳤고 후기에는 더 굳어진"이라는 다른 용례보다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조차도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서 인용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의미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복음 메시지의 내용을 나타내는 데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초기든 후기든 어느 시대에나 적절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대나 옹호가 있을 때마다, 그 맥락은 바로 신앙입니다. 이 편지의 그리스어 수준은 역사적으로 유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편지를 썼다는 증거로 자주 언급됩니다. 갈릴리 장인의 아들이 이 편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리스어를 쓸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유다의 사역 이전, 그리고 어쩌면 사역과 동시에 그의 기술과 직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 수 없으며, 그가 갈릴리의 제2 언어인 그리스어에 더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건축과 목공이라는 가업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아버지의 사업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고, 그렇게 많은 가족을 부양할 만한 사업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유다가 다국어 사용자라는 도시에서 종교 운동을 이끌며 예루살렘에서 겪은 경험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 유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운동의 다른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거나 큰 순례 축제에 간헐적으로 참석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선교사로서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3세기 인물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를 인용하며 예수의 친척들이 갈릴리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다고 언급합니다.

세포리스, 티베리아스, 벳새다 율리오 처럼 헬라어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수적이진 않더라도 매우 유용했을 도시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선교 활동이 스키토 폴리스 (갈릴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지나쳤던 곳)나, 가다라, 히포(두 도시 모두 갈릴리 바다를 마주 보고 있음)와 같은 데카폴리스 도시들까지 확대되었다면, 헬라어 구사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실제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훨씬 더 광범위한 선교 활동을 했다고 시사합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이 순회 선교사이자 교사로 활동하며, 그들의 아내들이 여행길에 동행하고, 교회들이 그들을 지원하며 고린도 신자들이 이러한 관행에 익숙해지기를 기대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이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사역을 했다면, 유다는 그의 이전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헬라어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되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서신은 폭넓은 헬라어 어휘를 보여주지만, 예외적인 헬라어 문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2언어로 자연스러운 표현을 익히는 것보다 어휘를 습득하는 것이 더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다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개종자들에게 편지를 썼듯이, 그리스어 언어와 작문에 더 익숙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 아니, 개연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학자들은 유다서 17절과 18절이 독자들에게 사도들의 죽음을 회고하며 전한다는 이유로 이 서신의 진위성에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언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따르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는 지시가 분명히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마치 죽은 사람처럼 기억하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후자는 가능한 추론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필연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에는 날짜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다. 더욱이 저자는 독자들이 사도들의 입에서 직접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며, 그중 적어도 일부는, 가장 자연스럽게, 교회가 존재한 첫 세대에 속한다고 본다.

이 편지가 팔레스타인 유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은 이 편지의 진위성을 긍정적으로 시사합니다. 저자가 사용한 성경 구절들은 지중해 동부 지역의 그리스어 사용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구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보다 구약의 히브리어 본문을 더 잘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서 12절은 침입자들을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으로 묘사합니다.

잠언 25장 14절의 히브리어 본문에서, 자랑하는 자는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과 바람에 비유됩니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자랑하는 자를 단순히 바람과 구름과 비에 비유하며, 원래 이미지의 주요 특징인 아무런 유익도 가져오지 않는 거센 폭풍을 생략합니다. 유다서 13절에서는 침입자들을 바다의 거친 파도라고 부르며,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마치 바다 거품처럼 떠올리게 합니다.

다시 말해, 이는 이사야 57장 20절의 히브리어 본문을 반영하는데, 악한 자들은 진흙과 진흙을 솟구치게 하는 요동치는 바다에 비유됩니다. 이 구절의 칠십인역에는 바닥의 진흙을 휘저어 놓는 썰 새 없는 바다의 강렬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칠십인역의 악한 자들은 단순히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 치며 썰 수 없을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

가장 극적인 부분은 저자가 에녹 1서를 사용한 부분인데, 이 책은 팔레스타인에서 저술되어 가장 널리 읽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제는 나중에 서신을 살펴보면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저자는 또한 카인과 같은 성경 속 인물에 대한 성경 외적인 전승, 즉 히브리어 성경의 아람어 의역 본인 아람어 타르굼 에도 정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와 관련하여 , 야고보의 비중을 제외하고는 명확한 내적 단서가 없으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야고보가 지도자 역할을 맡은 이후의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의 동생의 생애를 고려하면, 이 서신은 서기 5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전의 존재나 파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연대 측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침묵을 근거로 한 주장은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특히 엽서만한 분량의 편지에 적용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자가 1절에서 말했듯이, 이 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쓴 진짜 편지로 간주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만 부른 겸손함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를 유대 예수 운동의 수장, 그리고 저자이자 독자인 예수의 형제라기보다는 노예로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노예 제도는 1세기 사회 질서에서 가장 낮은 지위를 나타냈지만, 노예는 또한 하나님을 특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경칭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은 모두 유대 경전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기독교 선지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로서 권위를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바울, 야고보, 요한 역시 자신을 그러한 자들로 규정합니다.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는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유다는 자신의 청중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상당히 일관되게 언급하는 것처럼, 그는 그들의 회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의 민족적 구성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편지의 내용은 독자들이 카인, 타락한 천사, 그리고 모세에 대한 유대 전통에 익숙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되었으며, 이는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유대인 사회에서 유래하여 권위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에녹 1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익숙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 서신은 쿨란 공동체에서 권위 있는 본문이었으며, 따라서 더 큰 에세네 운동 전체에 걸쳐 권위를 발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청중은 주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이러한 전통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처럼 바닷가 카이사레아에 거주하는 이방인 개종자들도 상당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청중은 또한 예수의 친척들이 행사한 영향력과 감독의 범위와 잘 부합했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시골 마을 사람들은 유다가 언급한 도덕적 기준의 완화에 민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리스와 다른 비유대인 생활 방식에 둘러싸여 있고 어떤 경우 에는 스스로도 그것을 버리고 있는 갈릴리의 도시 중심지나 해안 평야의 그리스도인들은 실험적인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심포지아 문화를 기독교인들의 아가페 식사에 더 자유롭게 접목하여 먹고 마시고 교체하는 문화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도시 중심가에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내의 도시 독자층 또한 유다가 아랍어가 아닌 그리스어로 글을 쓴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학자들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유다 자신도 수신자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청중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곧 청중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용하자면,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초대를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는 자들입니다. 초기 교회 전체에 널리 퍼져 있듯이, 유다는 한때 역사적 이스라엘에 적용되었던 언어를 사용하여 특정한 공동체를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곧 성도들에게 한 번 맡겨진 믿음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거나 초대하신 백성으로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거나 사랑받는 백성으로 여기신다고 종종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보호받는다라는 개념이 이 짧은 서신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21절에서 유다는 듣는 이들에게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반면에 끼어드는 교사들 역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13절에 나오는 지하 세계의 어두움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정신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선을 넘어 영원한 결박으로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며, 6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2절에서 "너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더 많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며 1세기 서신의 서두에 사용된 전형적인 공식을 완성합니다.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인사하는 이 공식은 대개 매우 간결하게 표현되었는데, 예를 들어 마카베오 상하서에 매우 과도하게 보존된 헬레니즘 서신들뿐 아니라 이집트 모래 속에서 발굴된 수백 개의 비문학적 파피루스 서신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처럼 유다는 각 요소를 더욱 확장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단어인 인사가 자비, 평화, 그리고 사랑을 바라는 마음으로 대체되는데, 아마도 각 경험의 근원이 하느님이시며 듣는 이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청중을 소중히 간직하고 사랑한다는 격려적인 묘사와 더불어, 이 소망은 유다가 자신의 서신을 낭독할 사람들에게 선의를 가지고 있음을 강력하게 확신시켜 주며, 또한 그들이 유다와 그의 경고에 호의를 베풀도록 합니다. 사랑과 자비는 또한 이 짧은 서신 전체에 걸쳐 일련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유다는 결론적인 권면에서 자비라는 주제로 돌아와, 청중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에 소망을 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형제자매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권고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두에서 청중들을 사랑받는 자로 묘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소망은 편지 전반에 걸쳐 청중을 사랑받는 자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함과 신실함의 길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는 권면으로 응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두 구절들은 이 글이 편지라는 장르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동시에, 어떤 연설이든 강렬한 서두를 위한 두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 연설자의 권위와 선의를 확립하고, 둘째, 연설의 핵심 주제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처럼 실제로는 광범위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쓰인 소위 가톨릭 서신들과 함께 묶여 있지만, 유다는 실제로 매우 구체적인 문제와 상황, 즉 특정 회중이나 회중 집단 밖에서 온 교사들의 출현을 다룹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공유하는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부지런히 편지를 쓰던 중, 성도에게 단번에 전해진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편지를 써야 할 필요가 생겼노라. 어떤 사람들이 끼어들었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이 심판을 받기 위해 세워진 자들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끄러운 방탕으로 바꾸고 우리의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유다는 이 짧은 서신에서 여러 차례 청중을 사랑받는 자로 부르는데, 17절과 2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청중과 맺은 정서적 유대감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유다의 선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신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보다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행동하는 다른 교사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유다는 마치 전혀 다른 종류의 서신을 쓰고 있었던 듯한 인상을 줍니다. 예수님의 이부형이 복음 메시지로 이해했던 것과 그 메시지가 가져다주는 소망에 대해 더 자세한 진술을 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유다가 청중들을 향한 호의의 표시입니다. 그는 이미 청중들과 그들의 믿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들이 믿음에 기반을 두도록 자신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 즉 유다가 관심을 두던 회중들 사이에 순회 교사들이 등장하고 그 영향력이 커지자, 그는 영적 안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신자들을 위해 더욱 긴급하게 개입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회중들 사이에는 항상 다양한 교사들이 활동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의 경쟁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그의 개종자들 사이에 자리를 잡거나 자리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회중들 사이에 자리를 잡으려는 경쟁 교사들을 다시 만납니다.

우리는 유다서의 상황 뒤에도 교사들을 발견하며, 베드로후서의 상황에서도 그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선견자가 이세벨이나 니골라당이라고 부르는 교사들이 로마 제국의 아시아 속주 교회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기독교적 실천에 대한 비전을 내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4절에서 이러한 교사들이 몰래 끼어드는 모습을 묘사한 것은, 이들이 회중(들)의 외부에서 왔음을 분명히 시사합니다.

8절에서 유다는 꿈에서 비롯된 이 교사들의 오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로마 세계의 수많은 영적 구루들처럼 그들이 황홀경에 기반한 계시, 즉 신과 직접 접촉하고 신으로부터 직접 권위 있는 소통을 받는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가르침과 권위를 행사했음을 시사합니다. 12절에 등장하는 목양의 이미지는 이러한 침입자들이 스스로를 교사나 영적 지도자로 내세우고 행동하는

사람들임을 시사합니다. 유다는 청중들에게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확신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공유해 온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얻는 삶의 방식에 대한 확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절박함을 일깨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 곧 성도들의 공동체에 계시하신 진리를 직접 보관해 두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3절과 4절을 구성하는 방식이 듣는 이들을 유다와 나란히, 그리고 이 침입자들과 대립시키는 방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다와 수신자들은 서신이 전개됨에 따라 이 교사들이 공유하지 않는 공동의 구원을 누립니다. 유다는 또한 자신과 청중을 신앙의 수호자로 묘사하는 반면, 침입자들은 신앙의 온전함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부각됩니다. 여기서도 신앙은 신념과 실천을 형성하는 계시된 가르침의 집합체로 이해됩니다.

사실 유다는 교사의 교리보다는 윤리적 실천에 더 큰 문제를 제기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는 유다의 반대자들을 영지주의자로 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는 증거가 너무 부족하고 영지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에는 요한일서와 요한이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기독교론적 논쟁이 있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이 선생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기보다는 순종하는 데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가능성이 더 큼니다. 예수님은 고백과 실제적인 순종이 불가분함을 확증하기 위해 기억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신자들의 애찬에 그들이 참석한 것은 이 선생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겼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들의 삶의 궤적이 그와는 정반대임을 주장합니다. 4절은 그들의 주된 실패, 그리고 그들이 유다의 회중에게 초래한 주된 위협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방종에 대한 방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후의 심판 때 구원받을 기회와 수단을 제공합니다. 유다가 24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그분의 영광 앞에 큰 기쁨으로 흠 없이 서게 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유다의 청중들은 베푸는 자의 관대함을 이용하고 베푸는 자의 호의를 베푸는 자의 의도와 목적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내재된 불의와 모욕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베푸는 것과 은혜를 베푸는 것, 즉 선물을 존중하고 베푸는 자와의 충성의 유대를 존중하며 베푸는 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려 노력함으로써 은혜를 베푸는 것과 은혜를 베푸는 것의 윤리에서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침입자들이 이 신성한 유대를 어기고, 죄를 벌하기보다는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관대한 자비를 왜곡하며, 그들의 삶에 여지를 만들고, 어찌면 다른 신자들도 하나님을 공경하기보다는 자기만족적인 행위에 여지를 만들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관용을 의미한다는 관념은 사도 복음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1세기 교회에서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의 회심자들이 율법 없는 복음에서 끌어낸 함의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에서 일부 사람들이 저지른 성적 방종과 우상 신전에서 열린 연회에 다시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과도한 자유를 그가 어떻게 다루어야 했는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로 다뤄진 일부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예를 들어 바울의 고린도 교회 신자들처럼, 신자들이 이웃과 잘 지내기 위해 우상 숭배에 참여할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러한 자기 방종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그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복음이 촉진한 도덕적 변화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이에 대해 강력하게 변호했습니다. 유다가 비난하는 침입자들 역시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속기 쉬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임승차와 그 이상의 이득을 노리는 카리스마 넘치는 스펀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2세기 이교도 작가 루시안은 페레그리누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불성실함이 드러나기 전까지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 회중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유다는 이러한 침입자들을 시장에서 자신의 철학이나 종교를 팔며 표적으로 삼아 이익을 취하려는 다른 허풍쟁이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묘사하며, 배와 허리를 가리지 않고 탐닉합니다. 4절에서 이 침입자들을 불경건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유다서 15절에서 접하게 될 에녹 1세의 예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경고했던 거짓 교사들(유다서 18절에서 언급됨)과 그들을 연결하는 언어적 연결 고리를 제시합니다.

유다는 이 침입자들이 4절에서 이미 오래전에 정죄받았다고 덧붙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그들의 영향력을 계속 용인하는 것의 이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데 일조합니다. 유다는 그들을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라기보다는 잘못을 범하고 근시안적인 사람들로, 재전도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로 규정합니다. 유다서의 많은 부분은 역사적 사례, 특히 그들이 공유하는 성경에서 발췌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침입자들처럼 행동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책임을 물으실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카인, 발람, 고라와 그의 무리, 반역한 천사들, 소돔 사람들, 출애굽 세대, 이 모든 것은 이 침입자들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경고이자, 그들이 그 길을 계속 걸을 경우 결국 겪게 될 종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또한 여기서 운명에 대한 강한 어조로, 사도들이 신실한 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기에, 침입자들이 실제로는 예정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유다가 언급하는 신자들 사이에 그들이 등장하기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줄거리의 결말은 이미 역사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서가 나오게 된 상황은 초기 기독교 운동 내에서 예언이 부활했던 더 넓은 배경을 반영합니다.

초기 교회는 자신들이 형성된 모든 곳에서 성령의 새로운 부어주심과 그 은사들이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기도하거나 낮선 언어로 말하거나, 표면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예언하는 등의 활동이 그러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과 같은 구절들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 모든 구절들은 회중 가운데 성령의 활동에 대한 더욱 높은 인식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사도행전 전체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오순절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사마리아에서의 사도들의 사역,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참으로 주님의 믿을 만한 말씀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시험하여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두세 명의 예언자는 말하고, 나머지는 그 말을 신중하게 다루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에 부합하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는 거짓 예언자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인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병든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병든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자들은 이 선지자들의 사역의 결과를 살펴보아 그 결과가 참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느니라.

바울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사가 천사의 환상을 보았거나 심지어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사기를 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교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교회 분열의 여파 속에서 기록한 요한일서의 저자는 윤리적, 교리적 시험을 제시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형제자매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 교사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지 못했습니다. 1세기 후반이나 2세기 초, 성령께 드리는 기독교 전례와 세 가지 교회 질서 및 윤리에 관한 지침서인 디다케(그리스어로 가르침이라는 뜻)는 16장 중 3장을 순회 예언자들을 환영하고, 지원하고, 시험하는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당한 자유와 존중이 주어졌지만, 영으로 말하는 척하면서 돈이나 선물을 요구하면 쫓겨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공동체 비용으로 3일치의 양식만 제공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영구적인 스펀지처럼 정착하거나 지역 지도부의 잠재적인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 은사는 영구적인 식사권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유다서에는 회중들이 성도들에게 전해진 믿음에서 단번에 그들을 미혹하여 그 믿음이 그들의 삶에서 이끌어 갈 방향에서 그들을 미혹하는 자와 믿을 만한 교사를 어떻게 분별하고 배울 수 있는지를 돕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또 다른 창이 있습니다.